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3년 11월 11일

CUOMO 주지사, 9/11 참전용사를 고용하는 사업체에 대한 세금 환급 실시 계획 발표

9/11 참전 용사를 고용하는 사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실업률 감소에 기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사업체가 9/11 참전 용사를 채용하도록 격려하려는 뉴욕주의 재향군인국(Division of Veterans' Affairs)의 노력으로서 채용 사업체에게 7400만 달러의 세금 환급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 주민들은 9/11 이후 수 년 동안 미국 육군을 위해 용감하게 일한 남녀 군인에게 특별한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뉴욕주에는 현재 75,000여 명의 9/11 참전 용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용감한 남녀 군인들은 나라를 위해 임무를 다했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이들이 일자리를 찾도록 도울 차례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국적으로 9/11 참전 용사들은 10.0%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세 미만의 9/11 참전 용사들은 10.5%의 실업률을 기록합니다. 9/11 참전 용사의 실업률은 일반인의 실업률보다 현저하게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Cuomo 주지사는 행정부에서 상징적으로 참전용사의 군사활동 능력과 경험을 취업의 기회로 전환하려는 “Experience Counts” 운동을 통해 9/11 참전 용사들의 취업을 강조하고 지원했습니다.

재향군인의 날(Veterans Day)부터 뉴욕주의 재향군인국(Division of Veterans' Affairs)은 재향군인을 채용하려는 사업체에게 세금 환급에 대한 정보를 직접 발송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향군인국(Division of Veterans' Affairs)은 9/11 G.I. 청구 수당을 허용하는 재향군인 조직과 학교에게 세금 환급을 홍보하며 150여 개의 재향군인 서비스 단체(Veterans Service Organizations)와 카운셀러가 배포하도록 세금 환급에 대해 설명한 팸플릿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세금 환급은 2014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Korean